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6
vol. 37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6년 겨울호

시론

- 3 **강 풀 끈 끈 끼로 꿈을!**
이준상(22회) 부회장

동문회소식

- 4 **화보**
- 8 **중앙약대,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멘토가 생겼다**
- 12 **총동문회 체육대회 비가 와도 우리는 달린다**
- 14 **제45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동기회소식

- 26 **피산 산막이 옛길을 돌아보며**
이은주(16회)
- 30 **30년전 추억 속의 퍼즐 맞추기**
박채금(29회)

인터뷰

- 15 **오늘의 나를 만든 말은 진인사대천명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말은 역지사지**
편집위원회

별난동문이야기

- 33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합니다**
김정수(26회) 하이텍팜 대표이사

35 만평

약국도움이야기

- 36 **항생제의 종류 2**
편집위원회

당선소감

- 21 **진취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 회장
- 22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동문의 승리**
최광훈(22회) 경기도약사회 회장
- 23 **의로운 마음으로 참 봉사하는 중앙인**
박정래(26회) 충남약사회 회장
- 24 **소통을 바탕으로 즐거운 약사회**
이원일(27회) 경남약사회 회장
- 25 **약사! 약사회! 국민과 함께!**
최병원(30회) 인천시약사회 회장

총동문회 및 학교소식

- 41 **총동창회장 신년 인사**
우리는 영원한 하나, 중앙인의 밤
새해 화합의 자리, 2016 중앙인 신년교례회

43 회비내역

45 장학기금

46 편집후기

깡 꿀 끈 끈 끼로 꿈을!

2015년 새해가 밝았나 했더니 어느덧 서산 너머로 졌습니다. 지금 경제는 얼어붙었고 금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약업 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 내재해 있는 위기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어떻게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고 기회로 바꿔 보다 나은 꿈을 꿀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깡**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진 한파가 닥쳐도 맨몸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깡과 자신감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꿀**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에 깡찬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논어에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설곳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탄실하게 실력으로 무장하면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진정한 **끈**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좋은 것은 잘하는 것만 못하고, 잘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단순 직업으로서의 약사가 아닌 즐기면서 일하는 진정한 끈으로서의 약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약장사가 아닌 존경받는 약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동문을 하나의 **끈**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끈이 없으면 성공은 커녕 살아가기 힘들다 합니다. 우리는 약업계에서 가장 탄탄하고 긴 끈을 가지고 있는 타 동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우리 선후배가 모두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것이며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한층 더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끼를 감추지 말고 다같이 참여하여 발산하고 그 끼를 더욱 더 발전시켜 승화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랑스런 선후배 동문 여러분,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깡, 꿀, 끈, 끈, 끼로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준상(22회)
부회장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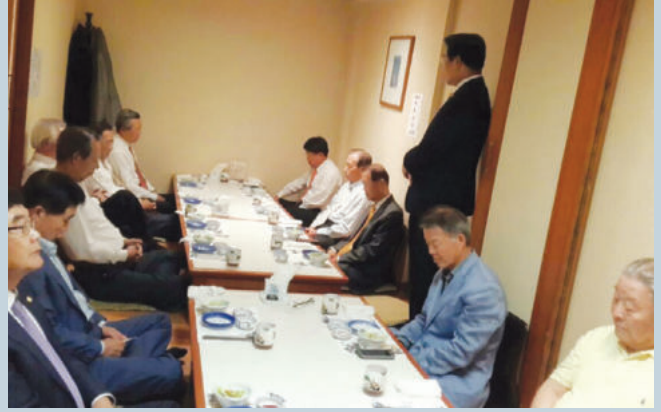
- 01 8월 28일_ 고양시분회 모임
- 02 9월 3일_ 회장단회의
- 03 9월 3일_ 장학기금운영위원회
- 04 9월 10일_ 평택분회 모임



- 01 9월 15일_ 송파분회 모임
- 02 9월 18일_ 안산분회 모임
- 03 9월 8일_ 모교의 날 골프대회
- 04 9월 22일_ 천안분회 모임



- 01
- 02
- 03
- 04



- 01
- 02
- 03
- 04

- 01 9월 23일_ 모교 약대교수 간담회
- 02 10월 6일_ 고문단, 자문위원단 회의
- 03 10월 26일_ 약대발전에 관한 간담회
- 04 10월 28일_ 여동문회 월례회





01

03

03



01 12월 27일_ 나사모 모임

02 12월 28일_ 여동문화 송년모임

03 1월 16일_ 신년교례회



중앙약대,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멘토가 생겼다



멘토링 2015 인적 네트워크 최대 성과
선-후배 사이에도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
잘 나가는 선배님들
뵙는 기회 만들어 주신
학교측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최대 성과는
30년 가까운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의 길을
만든거예요.
”

중앙약대가 선후배간 유대감 형성을 통한 동문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멘토링 2015'를 진행했다.

중앙약대 '멘토링 2015', 26 vs 120... 그 뜨거운 만남

'멘토링 2015'는 각계각층에 자리하고 있는 선배약사들이 5학년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멘티들이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해 조언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멘토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제약회사, 병원약국, 지역약국, 연구기관, 보건행정기관으로 구성돼 총 26명의 멘토가 참여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멘티는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 재학생 120명이 선정됐다.

학교 측은 사전에 학생별로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해 멘토 1인당 5명의 학생을 배정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멘토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로 멘토들에게는 리더십 역량강화를 비롯해 가능성이 큰 핵심 인재의 육성, 미래구성원의 학습촉진과 지식이전을 통한 업무성과 증대, 직장으로부터의 인정과 보상을, 멘티들에게는 빠른 사

회화를 비롯 직장생활에서 자신감 확대, 학습능력 촉진,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을 비롯한 이점 등을 꼽았다.

중앙약대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진행됐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들과 멘티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상범 중앙약대 학장은 "코디네이터 교수들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선후배간 유대감 형성과 동문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들었다"며 "특히 동문들에게는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리더십 강화의 기회였으며, 멘티 학생들에게는 동문 졸업생 선배의 실질적인 조언을 통한 진로 탐색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김헌태 중앙약대 동문회장도 독일 철학자 칸트의 '희망이 행복의 조건이다'는 말을 인용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이 자리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멘토로서 후배사랑을 베푼 동문들께 감사하며 참여한 멘티 학생들도 졸업후에 선배들처럼 멘토로 활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멘티 학생들은 12월 22일 102관 11층 UC에서 진행된 성과보고회에서 '나만의 멘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약분야 이현석 학생은 1차 멘토링 당시 제약업계에 대해 궁금했던 다양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었다며 그 중 자격조건, 연봉, 복지, 출산휴가, 대학원 과정을 밟는 직원의 경우 근무형태, 유학지원 등을 공통질문으로 꼽았다.

이후 2차 멘토링을 제약회사에서 받으며 회사 견학 후 약업계 역사, 현재상황,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분야 박민우 학생은 1차 멘토링에서 병원약사가 되고 싶은 이유 등을 밝히고 멘토께서 멘티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 실제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자세히 현실을 설명주셨다고 밝혔다.

이후 2차 멘토링을 통해 병원을 방문, 수업시간 책으로만 배웠던 수천 종류의 약, 조제하는 기구, 장비, 보관방법, 고위험 약물 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하는 약사들을 보며 현장에 대한 감을 익혔다고 설명했다.

지역약국분야 이수진 학생은 3회에 걸쳐 멘토링이 진행됐다며 1차 멘토링을 통해 지역약사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 약

사 면접시 가장 중요한 점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2차 멘토링에서는 약국을 방문해 조제실을 살펴보고 기계 사용법과 약품 관리법, 관리 노하우, 인테리어 중요성 등을 배웠으며, 3차로 진행된 특별강연에는 약국에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멘토가 답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은 멘토링 덕분에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실습을 나가겠지만 저만의 멘토를 만들 수 있었던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연구기관분야 이은석 학생은 열정, 도전정신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발표했다.

김동석 교수의 경우 유학시절 도서관이 24시간 개방되자 책을 어느 때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고 한다며 한 가지에 마음을 정하면 자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김학림 교수의 경우 안정적인 식약청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유학을 결정했다며 우리는 약사면허를 따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고 있는데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안정적인 상태라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멘토링참여멘토명단

- 제약회사** 김중효(일동제약), 정원태(한국유나이티드제약)
문희석(사이어코리아), 이경준(JW중외제약)
최재희(건일제약), 박중우(한미약품)
- 병원약국** 나현오(가톨릭대학교 약리학교실)
임형미(중앙대병원 약제부)
윤정인(연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약제부)
윤정이(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IRB 행정팀)
권지은(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 지역약국** 함한성(정문약국), 이해룡(동대문약국)
신수민(조달약국), 우경아(세종약국), 임성호(종로약국)
- 연구기관** 이병호(한국화학연구원), 김동석(중앙의대)
정성훈(동국약대), 정지훈(중앙의대), 김학림(단국의대)
- 보건행정** 최병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광호(대전지방식약청장)
박미지(식약처 임상제도과)
송호선(특허청 약품화학사과)
신은경(식약처 임상제도과)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전정신과 열정을 갖고 노력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분야 정상에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행정분야 박은혜 학생은 총 4번의 멘토링을 진행하며 특허청, 식약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하는 일과 입사하기 위한 준비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각 분야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해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으며, 보건행정쪽을 경험했지만 동기들과 병원, 약국, 제약, 연구기관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중앙약대는 '2015 멘토링' 프로그램의 베스트커플상으로 멘토 76학번 함한성 약사, 멘티 11학번 박찬민 학생을 선정했으며 우수활동상으로는 제약분야 이현석, 병원분야 박민우, 지역약국분야 이수진, 연구기관분야 이은석, 보건행정분야 박은혜 학생을 선정했다.

중앙약대는 2015 멘토링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향후 예산을 준비해 3개월의 단기간이 아닌 1년여 간 진행될 수 있는 행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총동문회 체육대회

비가 와도 우리는 달린다

우리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10월 11일 '제45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동문들은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이 참석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김현태(20회) 동문회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오늘 제45회 체육대회를 맞이해 앞서 여러 선배님들께서 쌓아온 업적이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이룬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20대 회장단도 꾸준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오늘 비가 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은 쌀쌀하지만 열심히 참여하셔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갈음했다.



한상범 중앙약대 학장은 축사를 통해 “마음이야 늘 모교를 생각하고 있지만 각자 주어진 생업에 졸업하고 나면 모교로 발걸음을 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오늘 참석해주신 동문여러분께 전체교수의 이름으로 모교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킬리만자로에 오를 때 현지인들은 올바른 방향, 포기하지 말 것, 서두르지 말 것과 같이 세 가지 조언을 한다고 한다”며 “중앙약대가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 속 약대가 되기 위해 교수, 재학생, 동문이 하나 돼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비록 쌀쌀하지만 중앙인의 기개를 하루 종일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모쪼록 중앙약대의 1보 전진을 위한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회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말년차라고 한다”며 “카드수수료, 시정명령제를 개선해 나간 것처럼 23년 숙원사업인 과징금 해결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1. 윷놀이
2. 족구
3. 제기차기
4. 미니골프
5. 테니스



체육대회는 테니스, 미니골프, 족구, 윷놀이, 바둑, 제기차기, 계주, 생맥주 마시기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으며,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20여개 단체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남녀노소 동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테니스, 족구와 같은 체육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했다.

고령인 동문들을 배려한 바둑, 미니골프, 윷놀이와 여자동문들을 위한 배구공 PK, 제기차기 등에서 나이와 성별을 떠나 쟁쟁한 승부가 펼쳐졌다.





생맥주 3000cc 빨리 마시기

특히 명랑운동회로 지정된 생맥주 3000cc 빨리 마시기와 꼬리밟기 게임에서는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 회원들이 함께 관전하며 치열한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한 기수별로 참여가 가능한 청백전 경기로 계주와 단체 줄다리기가 진행돼 선후배간의 단합을 공고히 했다.

각 경기당 배점을 합친 종합우승은 나사모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으로는 38회 동기회가, 3위로는 34회 동기회가 선정됐다. 최다참가상은 46명이 참가한 38회 동기회로 결정되었다.



메달리스트 이명원(51회)
우승 윤광중(26회)
2위 곽나운(27회)
3위 손병로(29회)

서코스 룡 윤대봉(14회)
동코스 룡 박수길(27회)
서코스 니어 김명웅(14회)
동코스 니어 이혁빈(28회)
이강욱(26회)
행운상 오경택(38회)

분회 1등 안양분회
2등 수원분회
3등 나사모
동기회 1등 20회동기회
2등 26회동기회
3등 28회동기회

제45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오늘의 나를 만든 말은
盡人事待天命
 진 인 사 대 천 명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말은
易地思之
 역 지 사 지

편집위원회

대한약사회장 재선에 성공한 조찬휘(15회) 회장!

덕담으로 시작해서 덕담으로 끝나도 좋을 상황에서 의례 있을법한 무용담이나 성공 스토리는 생략하기로 했다. 승자가 진리라고는 하지만 그 어려운 선거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치러낸 바로 그 밑바닥 힘을 진솔하게 듣기로 했다.

빠져린 가난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한 힘은 바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열심히 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에 숙연해 졌으며, 어느 날 회무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 끝에 약사사회의 수장으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내 진심을 알아준다는 체험적 진리 앞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작고하신 김명섭 회장을 필두로 한석원 회장, 김구 회장에 이어 대한약사회장 재선에 성공했다. 동문회로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전체 동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이 자리는 동문들에게 평상시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어릴 때 이야기부터 풀어 보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갖은 고생 끝에 어느 날 큰 뜻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다는 식의 성공 스토리는 전혀 없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일념으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은 출생지에 충북 청주시라고 쓰지만, 출생 당시는 청원군 오창면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나는 으레 그렇듯 편도 10리씩을 달려 초등학교를 통학했다. 다들 가난했던 시기라 특별히 가난하다는 것을 못 느꼈으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모내기하는 곳에서 어떻게든 새참이나 얻어먹으려고 기웃기웃 하다가 문득 집안 논이 다른 집에 비해 작다는 것을 목도하고 ‘아, 우리집이 정말로 가난하구나!’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때 내 머릿속을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핵폭탄급의 위력으로 강타했으며, 그곳에서 일을 돕던 머슴을 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도 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자각까지 덩으로 얻게 되었다.

생각이 바뀌자 행동이 달라졌다. 초등학교 졸업까지 나머지 2년을 버락치기로 공부해 졸업식에서 전교 1등의 성적으로 도지사상을 받고 청주중학교에 입학했다.

어려운 집안 사정상 당시 청주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큰형님 댁에서 조카들과 뒤엉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없이 눈물밥을 먹으며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청주중을 3등으로 졸업하고 지역 명문이라고 하는 청주고로 진학했다. 여전히 공부에 매진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2학년 진급시 동기생 두 녀석이 낙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당시 진천 출신으로 늘 1등을 도맡아 하던 이규황(전경련 전무를 지내고 한국다국적의약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과 내가 한 명씩을 맡아 입주과외를 하게 되었다.

다행히 친구 녀석의 성적은 올라갔으나, 공부에 소홀히 한만큼 내 성적은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며, 형님댁에 얹혀 살아가던 내게 탈출구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모아 운영하던 생물학반에 들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3학년 중반 입시 전략의 일환으로 전교생을 모아놓고 육사에 재학 중인 선배 몇몇이 육사 입교를 권유하는 행사에서 제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무엇보다 나를 뽕 가게 한 것은 육사에 입학하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공짜' 라는 말이었다.

그때부터 내 관심은 오로지 육사엘 가야한다는 생각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이 앞만 보고 공부하여 당연히(?) 육사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어진 체력검사에서 불합격, 그때만 해도 이면에 깔린 우리 역사의 아픈 편린을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저 성적이 안 되어서 불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학비를 책임져 주시던 큰형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청주교대에 입학은 했으나 육사를 가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수준 또한 기대만큼 높지 않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곁돌 수밖에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한 학기를 마치자 거의 대부분의 학점이 F, 그 길로 이불보에 책을 싸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택시를 타고 청주사범을 수석 졸업한 큰형님이 고향에서 교편을 잡다 서울로 스카우트 되어 재직 중인 경희초등학교로 가서 수업 중이던 형님에게 돈을 받아 택시비를 치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생의 행동에 놀라기 그지없던 큰형님 앞에 불문곡직 무릎 꿇고 이 대로는 못살 것 같으니 육사에 시험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읍소하여 끝내 학원비를 받아 종로에 있는 제일학원에 등록을 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다시 치른 육사 필기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했으나, 역시 2차 체력검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으나 끝내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지인을 통해 나중에 알아보니 상상도 못했던 연좌제 탓에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이었다. 동네 이장일을 보시던 외삼촌이 6.25 사변시 3개월간 적 치하에서 부역을 했다는 것인데, 그분이야말로 무슨 이념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장이나 통장 하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대로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완장을 자동적으로 차게 된 그런 상황이 전쟁의 폐해에서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저 먼 충청도 산골에서 일어난 부역의 전말이었다.

그간의 참고 참았던 온갖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밤새 울었다. 큰형님은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서울대 의대나 약대를 보라고 권유하셨고, 나로서는 어쨌든 한 눈 파느라 공백도 있었고 해서 약대로서 명망이 높은 중앙대 약대를 물어 물어 찾아간 것이 오늘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Q 너나없이 어렵던 시절이 조희장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음에 격하게 공감한다. 약대 입학 후 씨클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은 어땠나?

A 중앙대 약대 입시에서 쉬는 시간마다 문제가 너무 쉬워 자기는 다 맞았노라고 설레발 치던 동기녀석 탓에 육사고 약대고 다 틀렸구나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낙향, 동네 친구들과 까치담배 내기 민화투나 치면서 하릴없이 시간이나 죽이고 있었다. 며칠 후 까칠한 성격의 둘째형이 동네가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찾아와 내민 '축 합격 급 상경'이라는 전보를 보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당시 국립인 서울대 입학금은 1만5천원, 사립인 중대 입학금은 7만5천원 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학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형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를 이해했다. 파란색의 등록금 고지서가 아직 눈에 선하다.

약대 입학 이후에도 별다른 방법 없이 입주과외로 숙식을 해결하며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캠퍼스의 낭만이니 학생회나 써클 활동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다.

주머니 속에 형수가 하루에 두 장 주던 버스표만 달랑 들어있던 시절, 찾아온 친구에게 내려서 짜장면 한 그릇 먹자는 말을 못해 버스종점까지 갔던 일이며, 한때 유행하던 할부책 장사를 하러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으로 걸려 독섬의 즉결재판소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눈물 없이 읊조릴 수가 없다.

그렇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고생할 만큼 한 당시의 상황이 생존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졸업 후에도 바로 개국을 하지 않고 제약회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무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인가?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지만 무일푼으로 약국 개업을 할 수는 없는 일, 제약회사 시험을 보아 동아제약과 한독약품 두 곳에 합격을 했다. 당시로서는 약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입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던 분위기여서 회사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버스를 타고 중화동을 지나가다 눈에 흰 획스트 마크가 운명처럼 다가왔고 결국 한독약품에 입사를 했다.

학술부로 발령을 받았으나 리포트 한두 장 쓰면 퇴근하는 일이 반복되자 좀이 쑤셔 살 수가 없었고, 부산으로 발령받고 나서도 디테일 업무가 성에 차지 않아 약사가 무슨 영업이냐고 하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지인을 배타시하던 특유의 분위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이는 마산지역으로 옮겨 약국영업으로 바꾸었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공부는 하는 만큼 성적이 나아지는데, 영업 1등 한번 해보자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성과가 나지 않자 배수진을 치고 서울로 보내주기를 간청, 당시 최악의 거래처로 낙인찍힌 용산으로 배치를 받았다.

이것이 신의 한 수! 최고의 농맹이었던 선임자 탓에 약국의 불신이 하늘 끝까지 뻗쳐 있는 상황에서 1주일에 무조건 두 번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다. 전임자가 워낙 개판 처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반응이 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놈 싸가지 있네. 게다가 약사라며?”

내가 담당하던 지역의 모든 약국이 한독약품 약으로 도배를 했다.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1시쯤 종료하고 오후를 제끼던 월급쟁이 신분에서도 예비군복 입은 채로 출근, 수금을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누적된 결과로 1976년 7월부터 장장 18개월간 전국 영업 1위를 달성하여 지금도 한독약품 영업부 후배들에게는 전설로 남아있다고 들었다.

1978년 1월 당시 인분냄새만 진동하던 강남 허허벌판에 세워진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금상을 타고 파격적으로 사원 신분으로 성북구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여전히 달라질 것이 없었다. 관내 모든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고 시간 날 때마다 담당자와 동행방문 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인연으로 평소 많이 아껴주셨던 박신규(11회) 선배로부터 근처에 좋은 약국 자리가 났다는 권유를 받아 거금인 600만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당시 한국에서 최고의 난매약국이 몰려있는(오죽했으면 별명이 김일성 거리

였을까?) 골목 입구에서 개업을 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신참 약사로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들 했지만,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약국 인테리어부터 말끔하게 고치고는 특유의 성실성으로 밤을 도와 일한 결과 오늘까지 살아남게 된 것이다.

천직으로서의 약국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일찍이 성북구에서 자리 잡고 있던 동기 김승태 약사가 성북구 약사회장으로 당선되어 나를 총무위원장으로 불러들인 것이 약사회 회무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호사다마랄까 주식에 한눈을 팔다 홀랑 털어먹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회장도 아닌 부회장을 3연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끝내 이길 수 없다는 진리도 깨치게 되었다. 대학에서 학생회장 한 번 못해본 사람이 그 어렵다는 선거를 두 번이나 치루고 약사회장을 내리 연임하며 온갖 어려움에 임해서도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음을 배운 것도 이런 회무활동을 통해서였다.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몸에 익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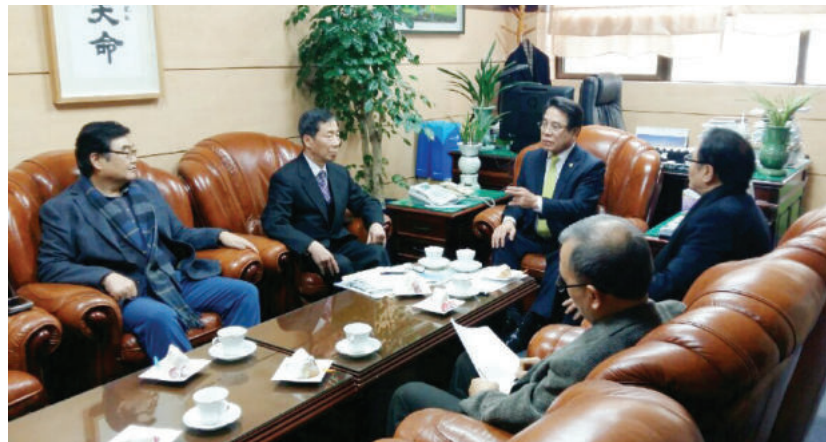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중 존경하는 선배 딱 한 분만 거명한다면, 그리고 장차 약사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앞서도 수차 언급했지만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별반 내세울 장점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었지만 태생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다가 지금의 약국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까지 주변의 많은 선후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각나는 선배들도 많지만 딱 한 분만 성함을 거명하자면 우리 동문회 원로이자 약계 신사로 존경받고 있는 이문규(2회) 선배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평소 선후배의 유대를 유달리 강조하시고 책임의식이 남달랐던 선배님은 어느 땐가 다리를 다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기어코 연수교육장에 나타나셨던 모습을 우리 후배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대약회장 선거시에도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우정 선거사무실까지 방문해 주셨다.

후배들에게는 품 잡으며 할 말이 정말 없다. 단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답이 아닌가 싶다. 대학시절 시험 볼 때 1주일간 날밤을 샌 적도 있다. 유급제도가 만연하던 시절, 낙제하면 안 된다는 생활상의 절박함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건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주고 운명이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하고 싶다. 회무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약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후배들에게는 내 회무경력 30여년의 시간을 짜내고 짜낸 엑기스가 바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행동하라는 말이다. 잘난 사람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으며 순간순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일이 끝도 없는 약사사회에서 내 이익을 차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인생살이 긴 과정에서 도움으로 다가온다. 언젠가는 상대방이 진심을 알아준다는 말이다.



Q 마지막으로 재선에 성공한 입장에서 안정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지만 당대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가? 혹시 본인만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도 가감없이 말해 달라.

A 이제 곧 신임집행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선거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문제들을 포함해서 약사사회의 위상 제고라는 큰 틀을 향해 모두가 합심해서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 그와는 별개로 당대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돌아가신 김명섭 회장님이 주춧돌을 놓아 서초동 시대를 연 약사회관이 세월의 흐름 앞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비만 오면 직원들이 신문지를 들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보고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재건축을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이며 약사의 위상을 위해서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세울 수 있는 장점보다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 많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밝히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사실은 술을 못한다. 한국 사회에서 술을 못한다는 것은 곧 친화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지만, 본의 아니게 딱딱하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곤 한다. 그러나 못먹는 술 억지로 배우려 하는 대신 말보다 행동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나를 믿어주는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모든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동문들이 먼저 출선수범하여 약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

조 찬 휘(15회) 대한약사회 회장

진취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동문 여러분!
 희망의 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여러분 2016년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제37대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한 지난 3년 청구불일치, 세월호 봉사약국, 법인약국 저지 등 크고 작은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이었고 보람과 아쉬움 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약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약권수호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수십년 회무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를 통해 약사회 발전에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제38대 대한약사회장에 재선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약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약사직능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 한해는 안으로 약사사회의 통합과 개혁뿐 아니라 밖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의료영리화 문제,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등 약사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는 약사회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한 그 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마련, 그리고 약사직능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약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세대간, 계층간 단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이 살아있는 동문회가 되어 약사사회의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2016년은 음양오행으로 붉은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붉은 기운의 진취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을 통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 광 훈(22회) 경기도약사회 회장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동문의 승리



안녕하십니까.

2016년을 맞이한 셋째날에 선후배, 동기, 동문님께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에 새로운 꿈과 뜻한 일 꼭 이루시고 늘 평안한 날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2회 최광훈입니다.

「영원한 사랑 중앙대약대 동문 여러분.

현재 경기도 약사회장 선거는 저 최광훈이 박빙우세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동문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약사회의 기둥이 되어왔던 중앙대의 역할이 결코 여기서 멈춰선 안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위 글은 지난해 12월 10일 치루어진 경기도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제가 동문님들께 지지를 부탁드렸던 글의 일부입니다.

저는 지금 제31대 경기도 약사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약사사회를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회원님들을 방문했을 때 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발표한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입니다. 물론 약권수호를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며 비전과 미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구상은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문들과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동문들의 조직과 유대감 넓은 사회 활동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동문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중대가 약사사회에서 일류로 존재하는 지의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후보의 조급함으로부터 생기는 황당한 문제까지도 동문님들은 불평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을 비단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 더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동문의 승리라 규정하겠습니다.

선후배, 동기, 동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 정 래(26회) 충남약사회 회장

의로운 마음으로 참 봉사하는 중앙인



안녕하십니까.

충남약사회장에 당선된 약학대학 78학번 박정래입니다.

당선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단독후보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충남약사회 중앙대 약대 동문 선후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2016년 충남약사회의 중심에서 회원들의 단합과 도약사회의 발전, 약사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봉사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마음으로 참 봉사하는 중앙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 일(27회) 경남약사회 회장

소통을 바탕으로 즐거운 약사회



회원이 즐거운 약사회를!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서 회원의 불편함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현재가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이 있는데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회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불편과 고통이 산재해 있다면 인내를 호소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선거기간 공약을 열심히 이뤄 나가는 것이 기본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약사 업무를 위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국약사를 위한 점점 커지고 있는 건강관련 흐름을 약국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과 의료기관, 유통, 제약 등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업무능률 향상, 회원간 정보공유, 업무영역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을 위한 기본은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지원하고 분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사회의 힘으로 젊은 후배들은 걱정 없는, 선배님들은 안정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대한약사회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3선 지부장의 경험으로 시·도 지부장과 함께 대한약사회와 회원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며 약사가 즐겁고 약사로서의 일이 즐겁고 약사회에 나오면 더 즐거움이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최 병 원(30회) 인천시약사회 회장

약사! 약사회! 국민과 함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여러분, 인천광역시 약사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된 30회(1982년 입학) 최병원 인사드립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와 공직에 근무한 10여년, 약국개업 및 약사회무 15년! 이 25년의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준비해 왔던 귀중한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 24일 본격적인 인천시약사회 출범준비 및 부회장, 지원단장, 상임이사 인선, 공약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자부심 넘치는 약사, 하나되는 약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회무목표로 오직 회원만 바라보면서 회원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부회장과 상임이사 체계 외에 6개 지원단을 신설하게 되는데,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단, 회원 고충처리 지원단, 인천약사정책 지원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의약품 안전교육단 활동 강화, 약사 봉사단 신설 및 스타강사 발굴을 위한 약사전문 강사 지원단을 통해 인천 약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투명한 회무를 위한 회계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해 인천약사회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약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회무 목표인 “자부심 넘치는 약사, 하나되는 약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부심 넘치는 약사를 위해 약사회는 약사님들에게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재능있는 약사님들을 전문분야 강사로 발탁, 양성할 수 있는 약사전문강사 지원단을 운영하고, 정착단계에 들어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회관내 체험약국 설치하며, 약사봉사단을 신설, 회원의 봉사 활동참여를 높여 약사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하나되는 약사회를 위해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단을 발족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국진열 개선, 경영컨설팅, POP 및 상담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회원 고충처리 지원단을 만들어 약사감시 또는 민원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초기 단계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투명회무 실현을 위한 회무 공개를 위해 약사회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으며, 분회 정기모임 순회 참석 등 분회 회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존경받는 약사 상을 완성하겠습니다. 우수회원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며, ‘GPP, 법인약국, 한약사’ 등 약사회의 다양한 현안 연구를 위해 인천 약사정책 지원단을 만들고,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제안 및 교류를 확대하겠으며, 지역 약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약학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DUR 적극 활용, 부작용 보고 확대로 전문가로서의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 주 (16회)



괴 산 산 막 이 옛 길 을 돌아 보 며

68동기회 가을모임

10월 25일 일요일 아침.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 알맞게 물들여진 가로수의 단풍이 가슴에 아련하게 한폭의 수채화처럼 녹아드는 행복한 날이다.

모든 모임엔 주최하는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만 가능하듯이 오늘의 우리 만남도 이은술 회장을 비롯하여 최광식 총무, 조기현 전회장을 비롯한 역대 임원진의 노고의 결실로 이루어진 나들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8시 30분 영등포역에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9시 30분 잠실운동장역에서 대다수의 인원이 전세버스에 착석했다.

하상권 동문이 마지막으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합류하고 현지에서 지방친구들 전주의 신규언, 남원의 이주열, 천안의 김선기, 송탄의 송수영, 동해의 김용환, 청주의 조연심 등 총 24명의 친구들이 충북 괴산에서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모두 만났다.

여정 도중 버스 안에서 총무님과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후 따끈따끈한 영양 백설기와 우리에게 친숙한 다방커피, 과일과 맥주, 소주 등 정성스럽게 준비된 간식보따리를 하나씩 선물받았다.

우리들은 모두 편하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소를 나누었고 가벼운 웃음소리도 번져나갔고 뒷좌석에선 고스톱판도 벌리며 목적지로 향했다.



모든 모임엔 주최하는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만 가능하듯이 오늘의 우리 만남도 이은술 회장을 비롯하여 최광식 총무, 조기현 전회장을 비롯한 역대 임원진의 노고의 결실로 이루어진 나들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준비성이 철저한 회장과 총무 그리고 송수영씨가 9월 11일 벌써 사전답사를 끝내고 점심 먹을 식당까지 예약을 해두어서 우린 그냥 참석만 하는 편한 여정이였다.

괴산 산막이 옛길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마을까지 연결된 총 길이 십리의 옛길로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된 산책로로 산과 물, 숲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괴산의 백미다.

이보다 더 행복한 나들이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괴산 산막이 옛길은 다섯가지 즐거움을 준단다.

1.산책 2.등산 3.유람 4.여행 5.자유

오늘은 세상일 다 접어두고 학창시절로 돌아가 즐기기만하면 될 것 같다.

약간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떠들다보니 생극휴게소를 지나고 있었다,

길옆으로 고개숙인 노란 벼가 바람따라 살랑거리고 탐스러운 괴산사과가 노란 벼와 조화를 이루며 새빨간 자태를 도도히 뽐내며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매달려 있어 한쪽의 때깔

고운 자연의 풍경화를 눈앞에 선사한다.

또 시들은 콩밭에선 아직 수확하지 않은 콩깍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김장용 배추도 푸른 걸잎을 자랑하며 한껏 가을의 운치를 더 해준다.

간간히 검은 차일을 씌운 인삼밭도 보이고 괴산 한우타운도 조성되어 있는 걸 보니 괴산은 여러 가지 먹거리가 풍성한 고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덩달아 지금 농촌은 수확의 기쁨과 풍성함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괴산이 가까워 오는지 차창 밖으로 칠성초등학교가 정갈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예술, 꽃, 씨앗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일요일이라 초등학생들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정겨운 고향에 한 발을 들여 놓는 것 같다.

학교에서 소를 기르는지 우사도 한칸으로 보이는 짜임새 있고 어린 시절 그리운 초등학교를 연상시키는 시골 학교다.

어느덧 예약한 식당에 도착했다.

우선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지방회원들과 반갑게 조우한 후 미리 주문한 식탁 앞에 앉았다.

버섯전골, 닭볶음탕, 메기 매운탕 등등 기호에 맞게 테이블에

“이보다 더 행복한 나들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은 세상일 다 접어두고 학창시절로 돌아가 즐기기만하면 될 것 같다. 68친구들이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iera. 물론 동기를 카톡방에서 매일 매일 서로 근황은 주고 받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모임을 더 늦기 전에 자주 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 친구들도 다음 기회엔 꼭 참석하고 머잖아 모이게 될 송년회엔 100% 참석율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자.”

둘러 앉아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안주삼아 술도 한잔씩 기울
인후 1시20분경 식당을 나와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인파가 인산인해다.
식당에서 선착장 가는 길에 유원지 특유의 식당들이 늘어섰
고 생울금, 생표고버섯, 천마차, 찹옥수수 등 먹을거리가 풍
성하다.
원래는 돌레길 워킹을 먼저 한후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게 순리인데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우린 배를 먼저
타고 오는 길을 도보로 순서를 바꿨다.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경로우대를 받았다.
정말 무섭고 빠르게 시간이고 세월인가보다.
어느덧 모두 65세가 훌쩍 넘었으니.....

배도 인원이 너무 많아 작은 배와 큰 배로 나누어 탔다.
작은 배는 모두 우리 친구들이 전세를 내서 전용배가 되었다.
배에 승선한 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과산호로 미끄러져 내
려갔다.
배는 호수가운데 하얀 포말을 만들며 물결을 헤쳐나가고 주
위는 무지개색같은 오색 단풍에 둘러쌓여 꿈길을 헤집고 나
가는듯한 착각 속에 약 20분정도 충북 과산군 칠성면 산막이
옛길 26개 명소가 눈앞에 펼쳐지고 노선장의 구수한 입담에
전설의 고향이라도 온 것 같다.

명소중 특이한 것은 '연리지'다.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가 한나무처럼 합쳐지는 현상
을 '연리지'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리지앞에서 지
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단다.

솔향기를 맡으며 삼림욕을 할 수 있는 40년생 소나무가 1만
평정도 큰 군락을 이루는 '소나무 동산'을 지나면 소나무와
소나무를 연결하여 출렁다리를 만들어 스릴을 만끽하는 '소
나무출렁다리'를 지나니 '정사목'이 눈에 들어온다.
'정사목'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데 천년에 한번이나 십억주에 하나정도 나오는 음양수로 나
무를 보면서 남녀가 함께 기원하면 옥동자를 잉태한단다.

남매바위 위에 정자를 만들어 비학봉, 군자산, 옥녀봉, 마가
봉과 좌우로 펼쳐진 과산로를 보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
다는 '망세루'를 지나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벗고 엉덩이를
보이며 무릎을 요염하게 꼬고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의 40여년
생 참나무인 '옷벗은 미녀 참나무'를 뒤로하고 풀종류인 사
위질빵 넝쿨이 버드나무와 하나가 되어 서로 영양분을 주고
받으며 공생하는 기이한 '풀과 나무의 사랑'도 보았다.
'옷벗은 미녀 참나무' 엉덩이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모두 하
나같이 쓰다듬어 반질반질 길이 잘난 장판바닥 같다.
'얕은뱅이 약수'와 '얼음 바람골'을 지나 느티나무 위에 전
망대를 만들어 쉬어가는 쉼터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호
수가 운치를 더하는 '괴음정'을 지나 나무꾼이 나무를 자르
려고 톱을 대었을 때 나무가 웅웅 울며 갑자기 팔이 아프고
두려운 맘이 들어 나무베기를 중단했다는 '신경참나무'까지
돌아보면 대중 관광은 종착역에 온 것 같다.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은 이곳에 이렇게 훌륭한 관광지
를 그냥 지나치고 살아 왔나보다.

도보로 산책을 할때는 흠어져서 몇몇이 짝을 지어 걸었다.
나는 유기욱과 하상권 조연심이와 같이 걸었는데 까마득하게
먼 학창시절이 코앞에 다가온 듯 우리는 큰 의미없는 얘기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들으며 모임장소로 가는 길에 넷이서 사과농장에 들렀다.

탐스러운 고운 빛깔의 사과를 현장에서 바로 즙을 짜서 한잔씩 마셨는데 약간의 갈증을 느껴서 그런지 것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사과주스는 평생 처음 먹어보는 듯 했다.

기욱이가 주스를 샀고 연심이는 이런 맛있는 사과를 친구들에게 먹이겠다고 사과를 사서 깨끗이 씻어 4등분하여 내려왔다. 예정에 없던 사과농장에 들려서 우리 팀이 제일 늦게 도착하려는 즈음 회장이 문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전화가 걸려왔다.

부리나케 모임장소에 도달하니 하산주를 앞에 놓고 식탁 앞에 모두 둘러앉아 얘기가 끝도 없이 피어난다.

야채버섯 부침개와 두부김치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며 또다시 왁자지껄 재밌게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네시반이 지났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점심먹었던 식당에서 지방친구들과 작별을 나누고 서울팀만 전세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약간의 취기와 취흥이 합쳐져서 우린 돌아가면서 노래도 한 곡씩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며 추억 속에 흠뻑 잠겼다.

돌아오는 길에 알게 된 것인데 이날 점심은 허사길이 한턱 냈고 하산주는 청주에 사는 조연심이 샀는데 알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고마운 친구들이고 이런 일은 앞 다투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모임때마다 돌아가면서 비용을 부담하는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연심이는 작년 청남대관광에서도 공주막걸리와 옥수수 등 하산주를 푸짐하게 선물한 친구다.

어느새 어두워진 고속도로를 지나 일곱시경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아쉬움 속에 작별을 고했다.

68친구들아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물론 동기를 카톡방에서 매일 매일 서로 근황은 주고 받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모임을 더 늦기 전에 자주 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 친구들도 다음 기회엔 꼭 참석하고 머잖아 모이게 될 송년회엔 100% 참석율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자.

이런 자리를 만들고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는 회장과 총무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낙엽은 지고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따뜻한 미소와 사랑 가득 나눌수 있는 행복한 친구들이 내 곁에 있으니 세상에 바랄 일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다시 만날 날까지 갓난애기적 수유의 평안함같은 즐거움이 나의 모든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하길 바라며.....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걸어가는 쓸쓸한 길이라지만 내가 걷는 삶의 길목에서 고단하고 힘든 날에 마음으로 다가와서 살포시 내 등을 토닥여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나의 68친구들과 이 가을을 정녕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박 채 금 (29회)



30년 전 추억 속의 퍼즐 맞추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9회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20여일간의 사전 SNS 모임으로 친목을 다진뒤 2015년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6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9회 동기 50여명은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중대약대 UC 11층에서 존경하는 은사님들을 모시고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그날은 오랜 가을 끝에 축복처럼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6시에 본 행사 시작이었지만 동기들을 30년만에 만난다는 설레임에 흥분된 몇몇 동기들끼리 4시부터 학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약대의 상징이던 파이프홀과 루이스가든이 사라지고 웅장한 위용의 UC건물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루이스가든에 있던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은 이렇게 사라질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나 봅니다. 창의적인 조형물이 전시된 농대와 정경대앞 가든을 지나서 청룡연못에 다다르니 연못이 왜이리 작아보일까요? 거기서부터 도서관 앞 산책로를 지나 의대를 거쳐 다시 UC에 도착하였습니다.

2층 동아리방들도 구경하고 5시에 11층 UCC에 도착하니 미리 대기하던 회장단이 과점퍼를 나눠줍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입고다니는 과점퍼를 입고보니 30년은 젊어진듯 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명찰을 목에 걸고 속속 도착하는 동기들을 반가이 맞이 했습니다.



"나 OO야." 서로 명찰을 보여주며 통성명을 하다가 넉넉하게 변한 동기의 얼굴에서 30년전 추억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파안대소하며 박장대소하며 격한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들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야 OO야 너 하나도 안변했다. 똑같다, 똑같애."



삼삼오오 사진찍고 웃고 즐기는 가운데 교수님들이 속속 입장하시고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수 동기 사회로 개회선언, 은사 내빈소개, 이준 동기회장 인사, 한상범 학장 축사, 김현태 동문회장 축사, 김은진 동기의 사은인사, 은사님들의 회고사, 동문회 장학기금 전달, 은사님 기념품 증정, 동문회기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칼라무스 남성4중창 평화의 기도, 교가 제창,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손교수님의 짧은듯 꽤 긴 회고사는 만찬을 더욱 더 맛있게 즐길수 있게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담화와 맛있는 식사가 어우러져 이렇게 1부 공식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먼곳에서 달려온 일부 동기들이 자리를 뜨고 2부 행사가 열리는 추억의 안동장 3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행운권 추첨과 즐거운 노래경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욱 동기의 독보적인 성인가요 열창, 김미자 동기의 녹슬지 않은 무대 매너, 하숙량 동기의 몸을 사리지 않는 복면 댄스, 집에서는 그럴리 없는 닭살 커플 선영 석재, 천연 보톡스를 맞은듯한 철선 승재, 변치않는 미모의 영자 선희 애진, 미소가 아름다운 은진 애경 연주 인석 혜선 희정, 우아하게 나이먹어가는 현순 인혜 경애 귀연 미선, 먼곳에서 마다않고 달려온 혁자(대구) 경애(대전) 승재(부산) 상수(제주), 저 멀리 미국에서 찬조해준 최은주, 독일에서 선물을 보내준 성은주, 동기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한아름 안고온 석재 형준 형수 상수. 모두들 초등학교 동창회에 온 착각이 틀 정도로 순수하게 즐거워했습니다.

이어진 3차 모임인 K2 노래방에는 아쉽게도 따라가지 못했지만 안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현대사의 격동기인 1981년 새대기로 중대 약대에 입학하여 동기가 된 우리 150명! 그뻘 잘 몰랐지만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웠던 청춘의 한소절을 같이 보낸 우리들! 졸업 후에는



약사라는 같은 직업을 갖게 된 우리들! 약국이라는 특수한 직업환경은 약사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의 명분 아래 피곤한 눈을 비비곤 했던 우리들! 그래도 이렇게 30주년 기념식에 50여명이 모여 단결된 힘과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동을 혼자서만 느끼기엔 너무 과분하여 SNS에 후기 남긴 동기들의 글을 옮겨봅니다.



“ 그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온 우리 동기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기들, 애들아! 세월 참 빠르고 무상하다. 다음 모임에는 우리 꼭 함께 뭉쳐 보자! ”

주사제용
카바페넴 항생제의
GLOBAL SUPPLIER
하이텍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합니다

당사는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2007년 10월 등록) 1998년 충북 음성군에 창립 이래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생산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끊임없는 시설투자과 연구개발로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원료제조는 끊임없는 연구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정밀화학 산업으로 의약품계의 중공업이라 할 수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미래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고부가 가치의 미래혁신적인 산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회사인 당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내는 물론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카바페넴계 의약품 원료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의 95%이상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 75% 이상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 백만불 수출탑을 시작으로 2003년 오백만불 수출탑, 2004년 천만불 수출탑, 2011년 오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수출 주력품목으로는 주사제용 무균이미페넴과 주사제용 무균혼합이미페넴-실라스타틴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미국 FDA으로부터 제조시설과 제조품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사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 성장의 수혜를 받아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는 미국 FDA의 정기실사를 받아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당사의 제조시설과 품질수준, 그리고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합성동



음성공장 전경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충주공장은 720억을 투자한 세계 최대의 카바페넴계 전용공장으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음성공장 대비 약 3배이상의 생산규모를 가진 공장으로서 당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글로벌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이란 자부심을 갖고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추가 제품 파이프라인 개발 및 규제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주사제용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Global Supplier가 되고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경영철학 및 인재육성을 통해 글로벌 원료의약품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차별화된 품질경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꾸준히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5년 중무식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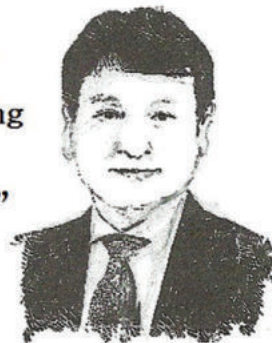
“하이텍팜은 더 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No labor, however humble, is dishonoring

“잘 생긴 사람들”

능력을 갖고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승자



승리의 김현태 회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항생제의 종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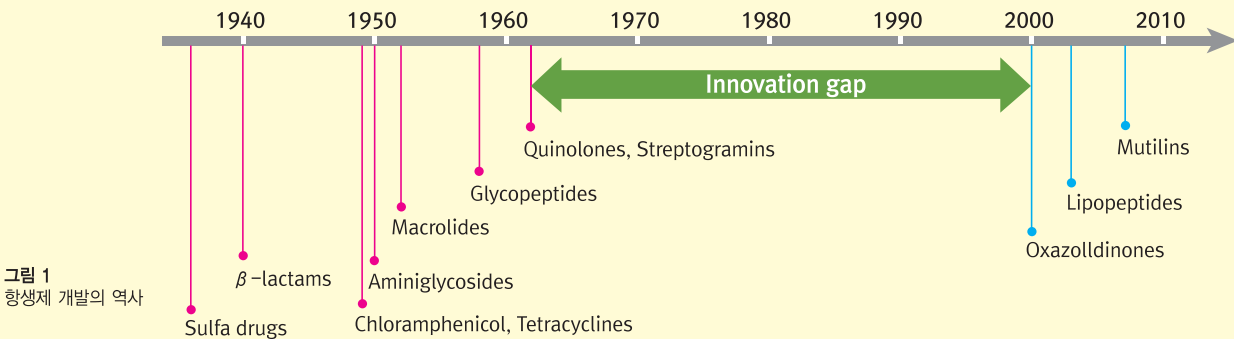


세균(bacteria)의
족보를 찾아서

IV

편집위원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생제 (antibiotics)란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세균 (bacteria)이 유발하는 각종 감염증에 적용하는 약으로,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임상에서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각종 항생제들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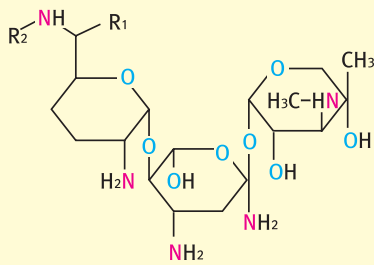


아미노배당체계 항생제 (aminoglycoside)

Aminoglycoside는 그람음성균 감염증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생제입니다. 1944년 Waksman이 *Streptomyces griseus*에서 추출한 streptomycin을 필두로 kanamycin, neomycin 등이 개발되었으나 갈수록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는 1963년 *Micromonospora purpurea*에서 추출된 gentamicin 유도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용기전상 세균의 리보솜에 결합하여 단백질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합성 저해제들과 마찬가지로 정균성 항생제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세포막 파괴에 따른 세포 내용물 유출 등의 부가적인 작용을 더해 살균성 항생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minoglycoside의 특징은 대부분의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력 양호하나 혐기성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경구투여시 위장관에서 거의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뇌관문 (BBB)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단백 합성 저해
임상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력 양호하나 혐기성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작용	이독성, 신독성

그림 2
아미노배당체계의 특성

신독성 및 이독성 등의 부작용이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혈중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투여해야 합니다.

Aminoglycoside 중 최초로 개발된 streptomycin은 과거 수십 년간 결핵치료의 1차 약물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내성을 나타내므로 더 좋은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Kanamycin 역시 녹농균을 제외한 그람음성균에 항균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거의 결핵약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Neomycin은 항균력은 좋지만 독성이 강해 전신감염증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수술 전 혹은 간성훈수시 장내세균 감소목적으로 경구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aminoglycoside의 시작은 그람음성균 감염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gentamicin이며, 이어 tobramycin, sisomicin, netilmicin, micromycin, astromicin, isepamicin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Kanamycin의 구조를 일부 변경한 유도체로서 amikacin은 gentamicin이나 tobramycin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 간균 치료에 효과적이며, 이외에도 dibekacin, arbekacin 등이 임상에서 활발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macrolide)

Streptomyces 유래	streptomycin, neomycin, kanamycin
Micromonospora 추출	gentamicin, tobramycin, sisomicin, netilmicin, micromycin, astromicin, isepamicin
Kanamycin 유도체	amikacin, dibekacin, arbekacin

표 1
아미노배당체계의 종류

Macrolide란 'large ring' 이란 뜻으로 다각형의 lactone ring에 아미노당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의 약물로, 감수성이 있는 세균의 리보솜에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단백 합성을 억제하는 정균성 항생제입니다.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양호하며, 최근 들어서는 chlamydia나 mycoplasma, legionella에 대한 항균력이 입증되어 이들이 관여하는 폐렴을 포함하는 호흡기 감염증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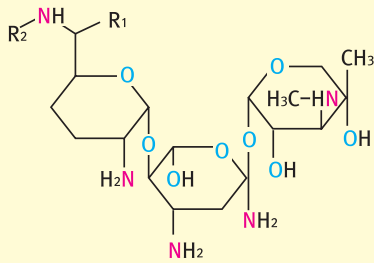
특히 이 계열의 약물들은 penicillin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에 항균력이 좋기 때문에 penicillin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대신 투여할 수 있습니다.

Macrolide는 임상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과민반응과 함께 복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일부 나타납니다.

이 계열의 약물들을 살펴보면 1952년 *Streptomyces griseus*에서 erythromycin이 분리된 후 이와 구조나 항균작용이 비슷한 제제들, 즉 leucomycin, spiramycin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rythromycin은 매우 쓰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위산에 의해 쉽게 불활성화 되기 때문에 장용정 (enteric-coated tablet)이나 과립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3
마크로라이드계의
특성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단백 합성 저해
임상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력 양호하나 혐기성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작용	이독성, 신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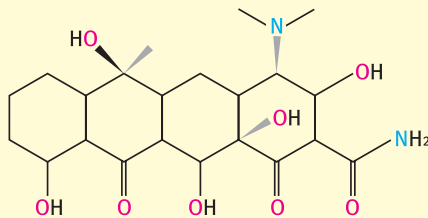
최근 들어 erythromycin의 새로운 유도체로 생체이용율이나 항균력이 개선된 azithromycin, clarithromycin, roxithromycin 등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tetracycline)

4개의 방향성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tetracycline은 세균의 단백 합성을 억제하는 정균성 항생제입니다. 1948년 *Streptomyces aureofaciens*에서 추출된 chlortetracycline이 소개되면서 그람양성균이나 음성균, 혐기성균은 물론이고 rickettsia, chlamydia, mycoplasma 등에도 양호한 항균력을 보여 소위 광범위 항생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tetracycline는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 투여하면 태아의 치아에 침착하여 황치 혹은 성장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산부나 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개발된 chlortetracycline에 이어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등이 개발되었으며, 1960년대 들어 반감기가 길어지거나 항균력이 증강된 doxycycline과 minocycline이 등장했습니다.

그림 4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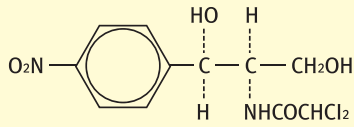
분류	정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단백 합성 저해
임상	그람양성 및 음성균을 비롯 chlamydia, mycoplasma, rickettsia, 원충류에까지 폭넓은 항균범위 보임
부작용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설사, 소아 황치 유발
제제	chlortetracycline,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doxycycline, minocycline

클로람페니콜계 항생제 (chloramphenicol)

Chloramphenicol은 세균의 단백 합성을 억제하는 정균성 항생제로 1947년 *Streptomyces venezuelae*에서 추출되었으며, 1948년 항생제로서는 처음으로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약물입니다. 항균범위를 살펴보면 그람양성균은 물론이고 그람음성균, rickettsia, chlamydia, treponema 등에도 항균력이 좋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지만,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막염, rickettsia 감염증, 장티푸스,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감염증 혹은 약물에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Thiamphenicol은 그 유도체로 골수억제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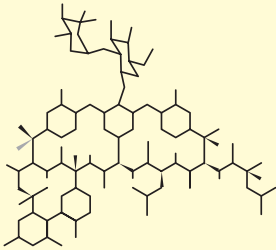


분류	정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단백질 합성 저해
임상	그람양성 및 음성균은 물론 rickettsia, chlamydia 등에도 광범위한 항균작용 나타냄
부작용	재생불량성 빈혈
제제	chloramphenicol, thiamphenicol

그림 5
클로람페니콜계 특성

글리코펩티드계 항생제 (glycopeptide)

Vancomycin은 주로 그람양성균에만 효과적인 비교적 항균범위가 좁은 항생제로 초기에는 β-lactam계 항생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등 사용이 활발한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들이 문제가 됨에 따라 특히 MRSA와 같은 난치성 세균에 대해 1차 선택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세포벽 합성 저해
임상	호기성 및 혐기성의 그람양성균, 특히 MRSA에 대한 1차 선택제
부작용	홍조, 가려움증, 발열, 오한, 주사부위 정맥염
제제	vancomycin, teicoplanin

그림 6
글리코펩티드계의 특성

Vancomycin의 살균작용의 주요 기전은 분열하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β-lactam계와는 다른 단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교차내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분자량이 몹시 크기 때문에 그람음성균의 외막을 투과하지 못해 살균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부작용은 홍조, 가려움증 및 피부발진, 발열, 오한 등이며 주사부위의 정맥염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Teicoplanin의 작용기전 역시 vancomycin과 동일하지만, 정맥주사만 가능한 vancomycin에 비해 근육주사도 가능하며 반감기도 더 길습니다.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quinolone)

Quinolone은 여타 항생제들과 달리 자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제인데, 임상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기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quinolone은 주로 그람음성균의 DNA gyrase (topoisomerase II)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세균의 증식에 필요한 핵산 합성을 방해하여 항균작용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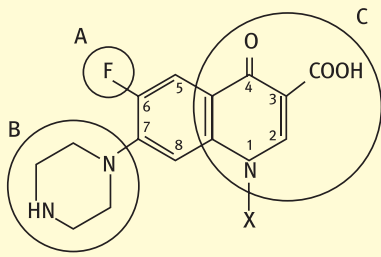


그림 7
퀴놀론계의 특성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핵산 합성 저해
임상	경구흡수율이 뛰어나며 그람음성균에 이어 그람양성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항균활성 나타냄
부작용	오심, 두통, 현기증, 광독성, 연골손상

새롭게 개발된 quinolone은 경구흡수율이 뛰어나며, 주로 그람음성균을 주 대상으로 했던 초기 제제들과는 달리 그람양성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제제는 그람양성균에 있는 topoisomerase IV를 1차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양상은 비교적 양호하여 오심, 두통, 현기증이 주로 나타나나 제제에 따라 광독성이나 심장독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Quinolone은 통상 초기 quinolone, fluoroquinolone 및 새로운 fluoroquinolone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임상에서는 이를 각각 1세대, 2세대 및 3세대로 분류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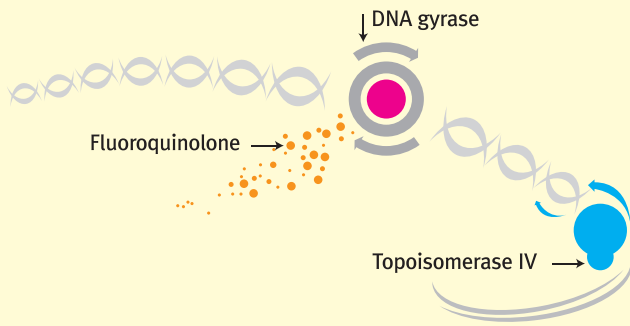


그림 8
퀴놀론계의 작용기전

1962년 4-quinolone 핵을 기초로 합성되어 1960년대 초 처음 임상에서 사용된 nalidixic acid는 그람음성균의 일부에만 항균력을 보인 반면 조직분포가 불량하고 부작용이 많아 그 사용이 요로 감염증으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개발된 nor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 enoxacin 등의 fluoroquinolone은 6번 위치에

불소 (F; fluorine)를 도입함으로써 항균범위가 그람양성균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체내흡수율이 향상되고 부작용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levofloxacin, sparfloxacin, grepafloxacin 등의 새롭게 개발된 fluoroquinolone은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현저히 강화되었으며, 또 다른 new fluoroquinolone인 clinafloxacin, gatifloxacin, gemifloxacin 등은 그람양성균은 물론이고 혐기성균에까지 항균력이 강화되어 각종 복합성 중증감염증의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quinolone	nalidixic acid, oxolinic, cinoxacin
fluoroquinolone	nor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 enoxacin
새로운 fluoroquinolone	levofloxacin, sparfloxacin, grepafloxacin, clinafloxacin, gatifloxacin, gemifloxacin

표 2
퀴놀론의 종류

총동창회장 신년 인사

제 14대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김자호(건축 65) 회장이 약대 동문회에 신년인사를 전해 왔다.

“약학대학 동문회는 활발한 동문회 활동과 더불어 동창회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뿐 아니라, 특히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약 산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계신 동문회입니다. 2016년에도 약학대학 동문회 여러분의 번성을 바라며, 모교와 동창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 중앙인의 밤

2015년 12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서울 파르나스 대연회장에서 2015 중앙인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자호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서청원 11대 총동창회장, 유용태 12대 총동창회장, 박진서 13대 총동창회장, 문병집 전 총장, 김민하 전 총장과 모교에서는 이용구 총장, 이찬규 교학부총장, 황완균 대외협력처장, 박상규 100주년기념사업단장 등 총 600여 명의 동문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새해 화합의 자리, 2016 중앙인 신년교례회

중앙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자호)와 중앙대학교(총장 이용구)는 1월 4일(월) 저녁 6시 30분에 모교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에서 ‘2016 중앙인 신년교례회’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교례회에는 모교 교직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재단, 총동창회 집행위원단과 총동창회 산하 각급동창회 회장단 등 약 100여 명의 중앙인이 모여서 신년을 맞아 인사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회장단회비		600,000원
20회	김현태, 정찬현, 권오규, 김대승, 김홍진, 문주기 박기배, 유영내, 이상일, 이신규,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최석중	28회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구영삼, 정원태, 최용철
21회	김수배, 김중호, 최병철, 박전희, 홍종오	29회 손병로, 유종운, 강대용
22회	이준상, 강희윤, 유대식, 전일수, 최광훈	30회 김광식, 백영주, 윤미숙, 최병원
23회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32회 정선중, 조양연
24회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33회 조준상
25회	김광호, 김희섭, 이내홍, 이광인, 최두주	34회 한일권, 김보원, 신수민
26회	권송상, 김안식, 최민규, 한갑현	35회 도건호, 이경선, 임종식
27회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한봉길	39회 윤재경

이사회비		150,000원
1회	홍흥만, 손동헌	17회 장재인, 신창익, 이희정, 주완표, 이완철 선우영환, 김태성
3회	손석우	18회 강응모, 임태영
4회	정재현	20회 이극선, 조진환
5회	윤원영, 김영배	21회 백운경, 이상준
6회	김동열, 유상열, 안인혁, 안병한, 박정배, 신경숙	22회 이현희, 오황영
7회	박명신, 서명규, 정재일, 유영후, 이기안, 김정부	24회 임무호
8회	김돈기, 조의환, 임상묵, 박번일, 한석원	25회 조석현
9회	이근배, 문영동, 박장우	27회 최충식, 박수길, 유영한, 현기원
10회	박호일, 이양원, 이홍수	28회 유희동, 양창국
11회	김미자, 최옥출, 박승보, 황공용	29회 김은진, 김인혜, 한일룡
12회	김 구, 이성우, 노덕재, 이호섭	30회 도민숙
13회	구연홍, 문재빈, 최창엽, 이종각, 윤해선, 박동규	35회 최규룡
14회	윤대봉, 구종모, 김동원, 김윤국	
15회	조찬휘, 이영운	
16회	이은술, 백승복	기타 미상

일반회비

30,000원

10회	민병창, 이원일	29회	김종선, 김인혜, 이광수, 민희정, 장우성, 심미선
11회	안홍신, 이석태, 양계창, 전창환, 구자역, 최민재 차영진, 오성근, 김학진	30회	김현학, 홍염미, 고은숙, 조민숙, 이경숙
12회	오형철, 이만오, 김찬구, 박흥식, 김동욱, 임순성 김대건	31회	현영숙, 강미숙, 유영숙, 유인숙
13회	손찬규, 최승기, 이우식, 김창식, 최창조	32회	채영주, 안승희, 정현삼, 김형기, 나희진, 유귀숙
14회	김진행, 이용성, 현혜경, 류효성, 이강련, 채성기	33회	이종탁, 최현정, 소정우
15회	이명숙, 남석우, 박태호, 박인호, 정육주	34회	김현숙
16회	김용환, 박종애, 권희문, 김광길, 조연심	35회	김진, 정문선
17회	신승백, 김강현	36회	김영준
18회	이복숙, 육득윤	37회	한덕희, 조구옥
19회	남윤수, 김승호	38회	최은영, 이주희
20회	우영각, 송열호, 정동천, 방금숙, 최용철, 박지순	39회	신순옥, 방근철
21회	안병헌, 한찬수	40회	장미라, 이병두
22회	이순명, 김광준, 김태일, 박성준, 박동우	41회	박영진, 장산옥
23회	나용태, 한병철, 천경호, 윤명숙, 임창영, 송욱기	42회	이창경
24회	홍용기, 강창주, 김정무, 최금순, 함기철, 박용석	43회	장선영, 이경은
25회	이형수, 이광인, 김창현, 이동규, 이영제, 김선열 김태원	44회	고정봉, 정영자
26회	이순아, 이승현, 진희역, 나종우, 손영상, 황완균	45회	김지하
27회	염승호, 전명수, 박상규, 채규미	47회	김영준, 이승민
28회	강철순, 김경완, 이혁빈, 장민수, 양창국, 한용문 견주남, 조효금	51회	이준희
		54회	송지은, 윤초롱
		56회	이경민, 이익희, 신상윤, 하현수, 김사라, 이성수 서지영
			미상2명

2015-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약품분석화학	김정현
2	본동문회	2,000,000	면역학	이윤정
3	본동문회	1,500,000	약학	전연선
4	본동문회	1,900,000	약학부	김용민
5	본동문회	1,500,000	약학	심기현
6	본동문회	600,000	약학	서유미
7	본동문회	600,000	약학	김수빈
8	본동문회	1,500,000	약학	김솔이
9	본동문회	500,000	제약학	최종환
10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강진국
11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구형모
12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홍록기
13	본동문회	500,000	약학부	전소영
	천안동문회	1,000,000	약학부	전소영
14	본동문회(김명섭장학금)	2,000,000	제약학	김민지
15	본동문회(청호장학금)	1,900,000	제약학	이희주
16	여동문회	1,000,000	약학	한주희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7	26회동문회	2,000,000	약학	이성수
18	28회동문회	1,000,000	약학	고민혜
	부산동문회	500,000	약학	고민혜
19	강서동문회	1,000,000	약학부	홍효빈
20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민지
21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민정
22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약학	이수진
23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박제혁
24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박혜원
25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재기
26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약학	박소영
27	나사모동문회	1,500,000	약학	김진하
28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약학	김가희
29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윤혜
30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제약학	박만호
31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제약학	심영빈
합 계		40,000,000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큰일을 겪고 난 후...
마음을 열고 따스한 햇살에...
지붕에 덮힌 얼음이 녹는 것처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름다움과 조화를 피어나갑시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사실 영하 10도가 아주 추운 것은 아님에도 유달리 포근하던 날씨에
길들여졌던 몸이 과잉반응 하는 탓에 요 며칠 호들갑을 떨었다.
어느 해 2월 지리산 천왕봉 등정에 앞서 오후 5시 해지는 산장 입구에
매달려 있던 온도계의 눈금이 영하 19도 였던가?
새벽 3시 산장에 연결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영덩이 까고
맞닥트려야 했던 그 엄청난 찬공기의 기운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
그때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야 하다가도
아닌게 꼭 아닌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내복이며 목도리며 병어리장갑까지 챙겨든다.

이해룡(28회)
편집위원

떨지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다 대약회장 선거에 동문회 말석으로
참여하여 내심 참으로 기특하게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며 새삼 우리 동문회의 저력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렸다.
막판에 목소리까지 잠겨 선거운동 혼자 했느냐는 우정의 지탄도 받았지만,
같이 고생한 동문들의 따뜻한 격려로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주)는 최신시설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o Provide a Science Technical Solution For Human Health
인류건강을 과학적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대표이사/약학박사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한국휴텍스제약(주) 대표이사 이상일입니다.

저희 한국휴텍스제약은 1969년 국내제약업 제8호로서 제약산업을 시작하여, 우수의약품을 제조 공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춰 **획기적 신약을 개발**하여 모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신약개발에 연구,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치매, 뇌졸중, 고지혈증 등의 신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대 약학대학 협약 : MPPE, ASE 특허 임상개발 중)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기술 및 영업 비전이 있는 기업만이 도전할 수 있고, 미지 세계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새로운 각오로 생산, 영업, 연구개발에 정진하여 노사와 합심해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한국휴텍스제약(주)

본사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53번지 강남빌딩 2층 / TEL. 031-377-7900 / FAX. 031-377-7911
공장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7-6번지 / TEL. 031-377-7903 / FAX. 031-377-7912

한미약품과 함께하는 건강한 겨울나기



으슬으슬 감기엔



타이롤햇 건조시럽

콧물, 비충혈(코막힘)
두통, 재채기, 발열



써스펜 데이/나이트정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목구멍)통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흐쩍 흐쩍 코감기엔

코엔쿨 나잘스프레이

코감기(급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코막힘, 콧물
재채기, 머리무거움 완화



콜록 콜록 목아플땐

목앤 스프레이

목(인후) 염증
목의 통증, 부종(부기)
목의 불쾌감, 심, 구내염(입안염)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